

경기침체에 '중동 사태' 장기화...건설업계 위기감

미분양 누적에 공사비도 인상...자금난 악순환

호르무즈 봉쇄·유가 급등에 자재값 압박 우려

건설 경기 장기 침체 속에 중동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광주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누적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건설 원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평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장비비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건설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다. 최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갈등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가 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시멘트와 철강, 아스팔트, 페인트 등 상당수 건설 자재 가격이 유가와 물류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자재 생산비와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며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공사비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건설사들의 사업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광주 지역 주택시장에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큰 장애물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살펴보면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300여 세대로 수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4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회수가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신규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의 자금 흐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분양시장은 최근 청약 물량이 크게 줄면서 사실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신규 분양 시점을 늦추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공급 물량도 적지 않아 시장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민간공인 특례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 회복이 늦어질 경우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미분양 누적과 공사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국제 정세 변수까지 더해진 '삼중 부담'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 상승 압박이 더 커지면서 지역 건설 경기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국제유가 변수까지 겹치면 건설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해소와 시장 수요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가 원료 공급 차질로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중동 리스크에 지역 NCC 업체 가동 중단 기로

나프타 수급 '비상'...공급 차질 가능성 커져

가동률 조정 등 '버티기'...“한 달 뒤 진짜 고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까지 번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실제 원료 수급 차질로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석유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여수신단 내 에틸렌 생산기업인 여천NCC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통보하며 '공급 불가항력(포스마주르·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공급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선언하

는 조치인데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원료 수급 문제로 이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고객사에 보낸 서한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원자재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3월 인도 예정인 나프타도 착이 크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동발 리스크가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수입 물량의 약 54%가 해당 해협을 지나 국

내로 들어온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이다. 국내 공급 구조는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물량이 약 50~60%, 수입이 40~50% 수준이며 이 중 상당량이 중동산이다.

이처럼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NCC 업체들은 가동률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석유화학 정보업체 ICIS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 여수 NCC는 지난 2월 말 가동률을 83%에서 60%까지 낮췄고 여천NCC 역시 90%에서 68% 수준으로 조정했다.

여수신단 관계자는 "기업별 비축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다른 NCC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포스마주르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현대차·기아, '엑스블 솔더' 국내 최초 KS 인증

국가 공인 인정...산업용 착용로봇 새 품질 기준 제시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솔더'가 국내 최초로 착용 로봇 부문 KS 인증을 받았다.

현대차·기아는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덜어주는 '엑스블 솔더'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KS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KS 인증은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에 부합함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 기관으로 지정돼 첨단 로봇 제품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국내 로봇 산업에서 착용 로봇 품질을 국가 공인 기준으로 확보한 첫 사례로, '엑스블 솔더'가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대차·기아는 사람 중심의 로봇틱스 기술인 '엑스블(X-ble)' 시리즈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엑스블 솔더'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와 대한항공, 한국철도공사 등 국내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 허리 보조용 '엑스블 웨이스트'는 중량물 취급

작업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하지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착용 로봇 '엑스블 맥스'는 재활 및 의료 분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엑스블 솔더는 무동력 토크 생성 구조로 설계돼 비버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 유지 및 관리가 편리하다.

또 근력 보상 모듈을 적용해 보조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의 어깨 관절 부하와 전·측방 삼각근 활성도를 각각 최대 60%와 30% 경감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팀 최리근 상무는 "엑스블 솔더가 KS 인증을 통해 국내 산업용 착용 로봇의 안전·품질 기준을 선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로봇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 현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엑스블 솔더는 세계적으로도 제품 안전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2025년 2월 유럽연합의 통합 인증마크 등록 기관인 DNV로부터 안전성을 증명하는 ISO 13482 인증을 받았고, 이어서 5월에는 유럽연합(EU)의 기계류 지침 인증을 추가로 획득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자동차·기아는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솔더'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KS 인증을 획득했다. '엑스블 솔더' 생산 업체인 인톱스 구미 공장에서 열린 KS 인증 수여식. (좌측부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태우 본부장, 인톱스 김근하 대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팀 최리근 상무.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20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니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9.1%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히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Neo QLED와 OLED, 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앞세워 54.3%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52.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2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정상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특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2006년 기존 디자인의 틀을 깬 '보르도 TV' 출시를 계기로 글로벌 TV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위(14.6%)로 올라섰다.

보르도 TV는 측면에 위치했던 스피커를 하단으로 내리고, 외관을 연상케 하는 곡선형 모서리와 붉은색을 적용해 세련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2009년 '빛의 혁명'으로 불린 LED TV를

출시하며 시장의 트렌드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반도체에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내는 발광다이오드 방식을 통해 압도적인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다.

2011년 스마트 TV 출시를 통해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의 변화를 일으켰다.

2015년 '더 세리프', 2017년 '더 프레임' 등을 내 놓으며 라이프스타일 TV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다.

또 2017년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화질을 한 차원 끌어올린 QLED TV, 2018년 3300만 화소를 지닌 8K TV, 2020년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마이크로 LED 등 화질 혁명을 이끈 초고해상도 TV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2024년에는 업계 최초로 AI TV를 선보이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했다.

특히 2025년 '비전 AI 캠페인'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며 요구를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TV만의 통합 AI 플랫폼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에 마이크로 RGB TV 제품들을 대폭 추가해 OLED, Neo QLED 등과 함께 프리미엄 시장 강화에 나선다.

마이크로 RGB TV는 스크린에 마이크로 크기의 RGB (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빨강, 초

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또 '미니 LED'와 같은 보급형 제품의 라인업도 확대해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삼성전자 VDS사업부 윤석우 사장은 "글로벌 TV 시장 20년 연속 1위 달성은 전 세계 소비자들께서 보내주시는 삼성 TV에 대한 믿음 덕분에 이뤄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1등 DNA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보답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

